

두바퀴로 만끽하는 역사·문화…남도 가을을 달린다

광주 호수생태공원·가사문화권 일대 ‘자전거 한마당’

9일 백일장·걷기 대회 등 행사 다채…참가비는 무료

“도심을 벗어나 은륜(銀輪)을 굴리며 남도 역사문화를 만끽하자.”

가을정취를 느끼며 남도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자전거 한마당이 광주 호수생태공원과 담양 가사문화권 일대에서 펼쳐진다.

광주일보사는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가족단위 시·도민을 대상으로 2013 가사문화권 그린(GREEN) 자전거 한마당을 개

최한다.

광주시 사이를 연맹이 주관하고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 생활체육회 트레킹 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한마당은 자전거 사랑 행진과 백일장대회, 걷기 대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자전거 사랑 행진과 백일장, 걷기 대회 모두 참가비가 없으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나눠준다.

자전거 사랑 행진(비경쟁)은 광주 호수생태공원을 출발해 가사문화관 삼거리~지곡리 삼거리~매봉로~금산교~충효어린이집~송강로~충효제~충효왕버드나무를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 오는 5km 구간에서 열린다.

초등생과 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 행사는 ‘자전거 사랑’을 주제(세부 제목은 현장에서 발표)로 해 산문과 문운으로 나뉘어 열린다. 작품은 현장에서 나눠주는 200자 원고지에 작성해야 한다. 심사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구분해 실시하며, 대회결과는 20일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된다.

또한 부대행사로 건강 걷기대회(비경

쟁)도 함께 마련된다.

걷기대회(2.5km) 역시 광주 호수생태공원에서 출발해 환벽당 삼거리~한벽당~평모들녘~광주 동초등 충효분교~충효샘길~충효왕버드나무를 지나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환형(環形) 구간에서 진행된다. 식후 행사로 가을의 정취를 살릴 수 있는 국악과 클래식 위주의 작은 문화 콘서트도 마련된다. 이날 한마당은 크게 ▲잇혀져 가는 농촌의 정겨운 풍광을 직접 느끼는 ‘농촌사랑’ ▲가족애를 나누는 ‘가족사랑’ ▲가사문화권을 체험하는 ‘문화사랑’ 등 3가지 테마를 만끽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기동기자 song@

허영택 KIA 신임 단장

“윤석민 돌아온다면 잡겠다”

“광주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정된 팀을 만들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허영택 신임단장이 그리는 미래는 우승 아닌 꾸준한 4강이다.

허 단장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1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4강을 오가는 팀이다. 4강에만 들어가면 희망이 있다. 두산이 보여준 것처럼 치고 오를 수도 있다. 꿈과 희망을 주는 팀을 만들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기아자동차(주) 슬로박공장 관리팀장이었던 허 단장은 지난달 25일 전무이사 승진과 함께 KIA 단장으로 자리换了다. 낯선 곳은 아니다. 2006년 부단장으로 1년의 시간을 보냈다.

허 신임단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야구단 업무를 했었다. 분위기는 그때와 비슷하다. 8위를 했다가 4강을 갔다. 분위기도 좋았고 행복한 기억이다. 긍정적으로 내년을 보고 감독·코치·선수·프런트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전파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허 단장의 첫 걸음은 선수단 독려였다. 취임 직후 마무리 캠프지인 오키나와를 찾았고, 지난 주말에는 함평 철린저스 필드에 다녀왔다.

허 단장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분위기가 좋아야 성적도 난다. 열심히 지원하고 구단과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사

기를 올리는데 우선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기 진작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듣기’, 많은 얘기를 들으며 마음을 얻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성적이 팔등의 불이지만 허 단장의 생각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다. 작은 변화를 통해 단단한 팀을 만들고 KIA만의 색 찾는 게 최종 목표다.

“신·구 선수 조화 이뤄 새 구장서 성적 낼 것”

KIA만의 색깔 찾기 노력…목표는 항상 4강”

허 단장은 “먼저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해야 마음을 열 수 있다. 선수단·프런트는 물론 기회가 된다면 팬들의 얘기도 들어볼 생각이다. 밖에서 어떻게 KIA를 보는지 팬들도 만나고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한번 결정하면 잘 밀고 가는 스타일이다. 무조건 뛰어고친다가 아닌 마음을 합쳐 개선하는 쪽으로 이끌어야겠다”고 말했다.

신뢰를 잃은 팬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다.

허 단장은 “팬들의 마음을 잘 안다.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팀 레전드인 선동열 감독을 모셔왔는데 2년 동안 실패를 한 것이 마음이 아파. 팬들의 비판이 안타깝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심기일전 해 성적으로, 실력으로

허 단장은 “새 구장이 개장을 하고 전용 연습장도 생겼다. 선수들도 사람이라면 느끼는 것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면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선 감독에게 내년이 급할 수 있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도록 하겠다. 최악의 경우, 선 감독 이후를 생각하면 무리하다가 전력이 망가져서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FA(자유계약)에 대한 방침은 ‘집안 단속’이다. 외부영입의 가능성은 막아둔 것은 아니다.

허 단장은 “외부 선수도 막대한 금액을 주고 잡는데 내부는 무조건 잡는다는 생각이다. 선수들의 사기 문제, 연고지 분위기와도 연계된다. 윤석민도 돌아온다면 무조건 잡을 생각이다. 외부에서 자구 영입을 한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도저히 잡을 수 없다면, 죽어도 잡아야 하는 선수가 있다면 외부영입도 고려하겠다. 타 구단에 뒤쳐지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강한 팀을 만들고 싶다는 허 단장의 꿈, 그 출발점에는 정체성 찾기 있다.

허 단장은 “팀컬러는 타이거즈 인수 때부터 나온 얘기다. 형그리 정신이 없다고 얘기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요즘 세대는 배고파서 뛰는 것이 아니다.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하고 있다. 감독·코치도 이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선수들과의 교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대진·김종국 등 젊은 코치들은 그런 고민 해결의 일환이다. 선수들 얘기도 많이 듣고 교감을 하면서 우리 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FA ‘쩐의 전쟁’

KBO, 선수 21명 공시

FA(자유계약) 대여들의 움직임이 프로야구 스포츠리그를 뜨겁게 달군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6일 FA자격을 취득한 21명의 선수를 공시했다.

KIA의 루·타의 핵 윤석민·이용규를 비롯한 오승환·장원삼·박한이(이상 삼성), 손시현·이종우·최준석(이상 두산), 이대형·이병규(9)·김일경·권용관(이상 LG), 송지민(넥센), 강민호·박기혁·강영식(이상 롯데), 정근우·박경완(이상 SK), 박정진·한상훈·이대수(이상 한화) 등이 명단에 올랐다.

오승환·장원삼 등 7명은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로 8시즌 만에, 고졸 출신의 윤석민·이용규는 9시즌을 채우면서 처음으로 시장에 나오는 등 13명이 신규로 FA 자격을 취득했다. 박경완은 SK 2군 감독으로 새출발을하면서 사실상 제외다.

FA자격은 타자의 경우 매 시즌 폐넌트레이스 경기수의 3분의2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 횟수의 3분의2 이상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정규시즌 1군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2006년 이전 150일)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간주한다. 2006년 입단한 선수부터는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자격을 얻는다.

최대어도 꼽히는 윤석민·오승환이 해외진출을 선언했지만 강민호·장원삼·정근우 등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개 시장에 나와 이번 스포츠리그는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공시된 FA 자격 선수는 오는 8일까지 KBO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마감 다음날인 9일 FA 승인 신청 선수가 공시된다.

FA 승인을 신청한 선수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2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협상テーブル을 차린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도 FA 선수는 2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9개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체구단 협상 기간 마지막날까지 계약을 하지 못한 FA 선수는 해당 시즌 그리운드에 오를 수 없었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시즌 중에도 특정 구단과 계약이 이뤄지면 선수로 뛸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 야구 최강 누구

15~20일 대만 ‘아시아 시리즈’

아시아 야구 클럽팀의 최강자를 가리는 ‘아시아 시리즈 2013’이 15~20일 대만 타이중에서 열린다.

이번 아시아 시리즈에서는 중국을 대신해 이탈리아가 참가하는 가운데 한국·일본·호주·대만(2개팀)까지 5개국에서 모두 6개 팀이 출전한다.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3연패를 달성한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을 대표해 참가한다.

개최국 대만에서는 팀이 라이온스와 EDA 리어노스가 참가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럽 팀인 포르티투도 볼로나가 나선다.

일본은 창단 이래 처음으로 일본 시리즈에서 우승한 라쿠텐 골든이글스가 대표로 아시아 패권에 도전하고, 호주에서는 캔버라 캐벌리가 출전한다.

삼성은 팀이 라이온스, 포르티투도 볼로나 A조로 뛰었다. B조는 라쿠텐과 EDA 리어노스, 캔버라 캐벌리로 구성됐다. 조별 리그를 벌여 상위 2개 팀이 크로스 토너먼트를 치르고, 이후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삼성은 15일 오후 12시 인터컨티넨털 구장에서 볼로나와 대회 첫 경기를 벌인다. 17일 오후 6시30분에는 팀이 라이온스와 대회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18~19일 각 조 상위 2개 팀이 준결승을 치르고, 20일에는 결승전이 벌어진다. /연합뉴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2013 가사문화권 그린(GREEN) 자전거 한마당이 9일 광주 호수생태공원과 담양 가사문화권 일대에서 개최된다. 시·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날 행사는 가사문화권 일원을 자전거로 한바퀴 도는 자전거 한마당(5km)을 비롯해 자전거 사랑 백일장, 건강경기 대회(2.5km)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에서 역주하는 참가자들.

(광주일보 자료사진)